

一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참여치도 못할 것이요 방울 것도 없느니라. 그런고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二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주시리라. 나 보기에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三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말게 하
 四 소서 하더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五 복음을 전하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라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
 六 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거늘 일어나 가니라. 구스 사람이 있으니 구스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七 총찰하여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새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八 글을 읽더니 성신이 빌립더라 이라사대 병거 앞으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급히 가서 선지자 이
 九 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밝히 깨닫느뇨. 대답하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一〇 능히 알리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一一 사람에게 끌림이여 양이 추를 땅에 나아가는 것 같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함이며 어린 양이 털 깎
 一二 는 사람 앞에서 소리 없는 것 같도다. 낮을 때에 공의 없이 구문하며 생명의 땅에서 멸하였으니 누
 一三 가 그 새대를 기록하리요.

一 하엿거늘 내시가 빌립더라 묻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
 二 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가다가 물
 三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불지어다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아도 관계치 아니하뇨. 빌립이 가로되
 四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五 라갈새 주의 신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다시 보지 못하고 혼연히 길을 가더라. 빌립이 아소도에
 六 이르러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一 九 사울이 여전히 성내 주의 제자들을 공갈하며 죽이고자 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
 二 에 부치는 공문을 구하여 가지고 만일 그 도를 좃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
 三 오리라 하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밝은 빛이 두루 비치는지라 땅에
 四 엎드러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
 五 되 주여 되시옵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
 六 게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이 서서 말을 못하면서 소리만 듣고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 사울이
 七 일어나 눈은 때도 보지 못하니 사람이 손으로 끌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八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이상한 가운데 불러 가라사대 아나
 九 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지리로 가
 一〇 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一一 서 손으로 그 위에 안찰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내가
 一二 여러 사람의 말을 듣사오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사도를 대단히 괴롭게 하였다 하더니 이제
 一三 기서 제사장에게 얻은 권세가 있어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다 잡는다 하더이다 하거늘 주 가라
 一四 사대 잘지어다. 그 사람은 나의 백 그릇이 되어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할 것